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1:00 - 12:00

□ 장 소 : 온라인 ZOOM활용 비대면회의(아름인도서관)

□ 참석자 : 9명

○ 참 석 : 8명

김봉구 위원, 이준석 위원, 이현덕 위원, 정병오 위원, 김종민 위원, 김영미 위  
원(관장), 홍인실 위원, 이영란 위원

○ 불 참 석 : 2명

류민석 위원, 최성자 위원

○ 직 원 : 1명

김영례 부장

□ 개 회 선 언

-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 정병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 김영미관장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

□ 보 고 사 항

-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
- 2020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보고

- 김영례부장: 2020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사업실적을 작년 11월에 추경하였음을 설명하다.
- 정병오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 2021년 추경예산(안) 보고

- 김영례부장: 2021년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계수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 2020년 지정후원금 이월금 사용 계획 보고

- 김영례부장: 2020년 지정후원금 이월금 사용 계획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이월금이 늘어난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 이준석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후원금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 정병오위원장: 이해된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 운영규정 개정

- 김영례부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복지관에 규정, 세칙, 지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칙과 지침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세칙은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이고, 지침은 실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 정병오위원장: 운영규정을 이사회에 보고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운영규정 전체적으로 법조문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매끄럽게 표현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 김영미관장: 이에 대해 공감한다. 앞으로 협회나 복지재단에 건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보도록 건의하겠다.
- 정병오위원장: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 논의사항

- 김영미관장: 복지관 홍보 방안에 대해 그 배경, 추진 방안을 설명하다.
- 정병오위원장: 용마산역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역 이용자가 많지는 않으나, 현수막 홍보와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하철공사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용마산역 홍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마을을 달리는 지하철이라고 해서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약이 체결이 되어있어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병오위원장: 요즘 유튜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작년에 열면놀이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아직 수준이 미약하나, 앞으로 콘텐츠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김영례부장: 작년 연말 카카오같이가치에 중장년지원사업 모금을 처음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관이 하는 일을 더 홍보할 수 있었다.
- 정병오관장: 복지관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 홍인실위원: 항상 고민되는 사안이다. 복지관이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점, 주민 접근성이 약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구와 시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운영위원회 주축으로 복지관이전(상기신축) 공청회를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다. 한번쯤은 행정기관, 사업 소통부서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 김영미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는 구청에 상황을 알리고, 지역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에게도 제안하여 왔다. 다행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홍인실위원: 같이가치 모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작년에 직원들이 배달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배달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행히 2월부터 노인사회 활동참여자 어르신들이 배달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같이가치 모금은 올해 몇 번 목표를 세웠는데, 아는 사람들이 홍보, 공유로 협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다.
- 정병오위원장: 특이사항이 없으면 얘기 안하신 위원들께서 한 마디씩 인사를 하고 회의를 마치면 좋겠다.

## □ 기 타 사 항

- 이봉구위원: 코로나상황이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 김종민위원: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
- 이준석위원: 오늘 처음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다들 참여에 적극적이시

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 복지관이 더 발전할 것 같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더 노력하겠다.

- 이현덕위원: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복지관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 없는 우리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정병오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운영위원들이 복지관에 부담을 주거나 일을 더 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염려가 든다. 동시에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복지관 직원들께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 정병오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친다.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

## <관련 사진>



제1차 운영위원회